바르게 배우는 교회•행하는 교회•전하는 바로 그 교회

제41권 52호 2025.12.28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 근 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벧전 1:18-19).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감격이 있고, 언제나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적으로만 알던 지식을 버리고 영적으로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14-15).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은 도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사 43:21, 엡 1:5-6).

현대 교회는 종종 인간의 행위와 도덕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롬 8:38-39).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시교독	36번 시90편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60장	다 같 이
기 도		1부 김실근집사 2부 김일남장로
성경봉독	열왕기상19:19-21	인 도 자
찬 양	주만 바라볼지라	성 가 대
설 교	뒤에 있는 것을 잊어 버리고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93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에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19:20-21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 오후 11시

2025년 송구(送舊)

찬송- 406장
회상과 감사의 기도(5분)--한해 감사
고백과 회개의 기도(5분)--아버지 용서하소서
찬송-429장
소원과 간구의 기도(5분) -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성찬식 -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2026년 영신(迎新)
새해선포 --감사의 박수
찬송 --550장
공동기도문
성경봉독 -창세기13:14-18
성가대 찬양 -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설교 --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 박근상목사
헌금봉헌 호명기도 -- 박근상목사
광고
새해인사 -- 다같이
축도 -- 박근상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인도 / 박근상 목사 **성경- 요한 일.이.삼서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1. 2026년 한해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 31일(수) 오후11시 성찬식과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3. 주보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15)** 자료 있습니다.
4. 12일(주) 온세대연합예배. 소그룹의 날입니다.
5. 19일(주) 2부 예배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1층 교육관)
6. 26일(월)-28일(수) 오후7시 30분 신년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 맡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장옥 이흥룡 2층 성미옥 김순미 차양안내 이상열 황학성	김실근 김일남	황학성 손영문/한해감사
다음주	1층 오종화 이길연 2층 고지영 이화옥 차양안내 이상열 황학성	이흥룡 박현규	홍예진/하나님 은혜 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1,02) 3구역(노인숙)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시다.
다음주(01,09) 4구역(손영문)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시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일 1장 9절 제 목 -계속해서 쓰임받으세요.	활동 1.12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트로피 만들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최정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일 1장 9절 제 목 -계속해서 쓰임받으세요.	1.12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31일은 송구영신예배로 예배합니다. 3.예배후 달란트시장합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백가은 자매 기도자 -백성준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신명기 8:2~3 제 목 -돌아보되, 머물지 말자	1.12월 예배인도 백가은 자매, ppt 조수윤형제, 암송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예배 후 초등부 새신자 환영회와 1/10(주) 온세대 연합예배 인도연습이 있습니다. 3.1/4(주) 예배는 월초기도회로 드립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박주원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사도행전 20:7~12 제 목 -경계를 넘어, 완전한 생명으로	1.12월 31일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본당). 2.1/3(토) 10시 교회봉사 후 11시 청년부기도회 합니다.(5층 벧엘룸) 3.1/4(주) 대표기도는 김채정 자매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교회에서 헌금이나 십일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식어버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헌금은 구원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배 공간이 있으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들고, 전기·난방비도 나가고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장비도 필요하고, 고장 나면 수리해야 합니다. 교육 공간, 안전 장비, 교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지출도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든, 청년들 밥 한 끼를 챙기든, 선교나 구제 같은 일을 하든 돈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치켜세우거나, 헌금 액수가 신앙의 등급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돈"을 말하는 이유가 운영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영역이 돈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돈을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함께 책임질까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금과 십일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생각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거저 받는 은혜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 삶의 중심이 '나'와 '내 소유'만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마음이 진짜로 붙잡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필요할 때도 돈이 떠오르고, 미래를 대비할 때도 돈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방향을 거꾸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금이나 십일조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십일조든 헌금이든 자발적이고 투명성하게 정규적으로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인생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나의 자원을 드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엄청 많이 헌금을 내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 넓게 참여하면서 함께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이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배와 공동체 운영. 공간 비용, 시설 관리, 행정 비용, 교육 사역, 모임 운영, 주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위한 비용이 됩니다. 또한 사람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교역자(목회자) 사례비, 직원의 급여, 담당자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구제와 나눔. 지역의 어려운 이웃, 긴급 지원, 장학, 독거노인 지원, 재난 구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나 연합단체와 연대를 위하여 교회 밖의 단체를 돕거나, 공공성을 가진 일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공감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이 강요에 의하여 내는 것이라면 교회의 본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나 채면 때문에 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거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해야지 조직 유지가 우선인 단체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는데 상대가 일단 돈부터 내라고 한다면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교회에 정착하려면 헌금부터 하세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입을 연다면 그런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교회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먼저 신앙에 대하여 더 알아가세요. 참여하시겠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세요.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할 기본값입니다.

건강한 교회 재정에 대하여 교회 건강도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런 분위기면 비교적 교회가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재정 공개가 자연스럽다. 예산·결산을 정기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줍니다. 공개돼 있는 느낌을 줍니다. .

큰 지출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신앙의 등급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사람 대우가 같고, 헌금 액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역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리더의 삶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직자이니까 무조건 검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안에서 의구심을 가진 오해를 받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구제와 나눔의 흔적이 실제로 보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교회에 돈을 내는 종교 행위나 지출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헌금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키는 방법이 쌓아두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에는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교회가 돈을 말하는 이유 중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을 돕고, 공간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헌금과 십일조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불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안에 있는 자로서 거룩한 참여를 하는것입니다. 믿음을 돈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삶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드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면 더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식 소그룹 요한일서 1:1~10(1월 1일 본문)

바른 복음 위에 서는 사람

하나님 찬양하기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 405)

Focus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인도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요한일서1:1~1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주후 1세기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헬레니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인성을 거부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 교리를 논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영지주의의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이 바른 진리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찰과 묵상

1.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나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은 누구인가요?(1~3절)

2.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또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8~10절)

적용과 나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깝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앞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바른 복음 위해 서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인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르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는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 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수님을 통해 제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빛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신년 부흥회, 사경회, 특별새벽기도회, 겨울 캠프 등에 참여하는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합시다.

2. 아프리카의 매우 열악한 지역인 사헬에서 한 여성선교사가 믿음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전진하는 곳곳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길 간구합시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이름:**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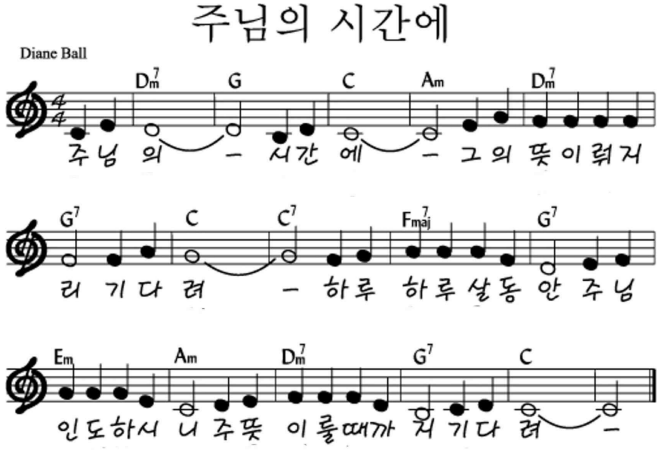
제목: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헌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뎀나무)